

한일정상회담(00.09.23) 주요 내용

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모리 요시로(森喜朗)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공동선언에 따른 문화적, 경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, IT 분야의 협력을 합의했다.

□ 한일 정상회담 개최

-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모리(森喜朗)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짐 (2000.09.23)
- 1965년의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결의를 1998.10월 정상회담 시 공동으로 선언(한일공동선언), 그 내용에 대해 이번에 재확인 및 합의

□ 협의 내용

- 경제 분야
 - 모리 총리는 무역의 균형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한국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**한일/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에 의한 사업 등을 통하여 對韓 부품소재 사업의 활성화가 진행될 것을 기대**한다고 언급
- 한일 FTA 문제
 - 양국은 향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 설립 합의

- IT
 - ‘한일 IT 이니셔티브’에 따라 향후 IT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
 - ‘한일 IT 이니셔티브’란 양국간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력,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, IT 인재교류 촉진, 지역간 IT 협력 등 다방면의 IT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것

□ 성과

- 이번 정상회담은 문화적, 경제적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실리를 포함한 의견교환을 달성
- 특히 한일공동선언에서 언급된 ‘행동계획’에서 IT 관련분야의 한일 협력을 위해 각 사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여 양국간의 IT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

<참고자료>

일본 외무성(<http://www.mofa.go.jp/mofaj/>)